

'독립영화 다양성 기대' 제작 지원 협력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프로젝트-캐스팅위원회, 업무협약... 총 4000만원 상금·캐스팅 옵션 제공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의 산업 프로그램 '전주프로젝트'가 지난 25일 오전 11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에서 국내 메이저 매니지먼트 4사와 캐스팅위원회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프로젝트는 영화산업의 침체기로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영화와 저예산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캐스팅위원회를 결성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캐스팅위원회에는 BH 엔터테인먼트, 호두엔터테인먼트, 골드메달리스트, SM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유명 매니지먼트사가 참여했다. 업무 협약식에는 민성욱·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 박태준 전주프로젝트 총괄 프로듀서를 비롯해 BH 엔터테인먼트 손석우 대표, 호두엔터테인먼트 최준호 대표, 골드메달리스트 안성수 대표, SM엔터테인먼트 김지원 CRO 등 전주국제영화제와 국내 메이저 매니지먼트 4사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 매니지먼트사별 협약을 작성하고 포토타임을 가지며, 협력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했다. 행사에 참여한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전주국제영화제와 좋은 기회를 함께 할 수 있어 뜻깊다"라 밝히며 전주국제영화제와 캐스팅위원회의 협약식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의 산업 프로그램 '전주프로젝트'가 지난 2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에서 국내 메이저 매니지먼트 4사와 캐스팅위원회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캐스팅위원회의 4개 매니지먼트사는 올해 제17회 전주프로젝트부터 '전주랩' 선정작과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넥스트에디션' 피칭 대상 중 프로젝트를 하나씩 선정, 총 4개 프로젝트에 각각 1천만 원의 상금과 캐스팅 옵션을 제공한다. 특히 캐스팅 옵션은 수상 프로젝트의 상금을 지원하는 각 매니지먼트사 소속 배우들에게 캐스팅 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상업영화와 독립영화 간 새로운 협력 모델로서 향후 독립영화의 다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스팅위원회가 선정한 4개 프로젝트는 5월 6일 제17회 전주프로젝트 시상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제17회 전주프로젝트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4월 30일~5월 9일) 중 5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김재훈 기자

'진안홍삼축제' 9월 26~28일 개최

축제 추진위원회 1차 총회 갖고 추석 명절 전 개최 확정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 '2025 진안홍삼축제'가 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펼쳐진다. 군은 지난 26일 오후 진안홍삼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우덕희, 정복수) 1차 총회를 갖고, 추석 명절 전 개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진안홍삼축제 추진위원회는 관내 기관사 회단체장 및 문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와 역량강화 교육, 임원선출, 홍삼축제 추진 방향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됐으며 선출직 위원장에는 정복수 씨가 임명됐다. 위원들은 지난해 홍삼축제에 대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해 올해는 더욱 알찬 진안홍삼축제가 될 수 있도록 총회 성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의지를 다졌다. '진안홍삼축제'는 대한민국 유일 홍삼특구의 고장인 진안에서 홍삼을 테마로 한 전국 유일의 축제로 2024~2025 문화관광축



제로 지정됐고,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진안군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덕희, 정복수 공동위원장은 "진안군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가 문화관광축제 명성으로 글로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진안홍삼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한지 활용 해외 수목화 워크숍·전시회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태국 현지서 진행

태국의 라자망갈라 대학(Rajmangala University of Technology Thanyaburi At FAG gallery Faculty of Fine and Applied Arts) 현지에서 전주한지를 활용한 해외 수목화 워크숍(23~24일)과 전시회(25~28일)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주한지의 세계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전주한지장과 수목 작가와의 세미나 및 국제수목제지전시 활동을 지원하며 2024년 태국 현지에서 전주한지를 활용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전당은 이에 대한 후속프로그램으로 행촌문화재단(행촌미술관)과 힘을 합쳐 우영민, 이지연, 안혜경, 김하영 4명의 작가와 이준길 통역사를 섭외해 태국의 라자망갈라 대학에서 '2025년 전주한지를 활용한 수목화 워크숍'을 진행한 것이다. 이번 워크숍은 수목화를 위해 전당이 제공한 전주한지가 활용되었으며, 프로그램 참여 작가들과 태국의 학생들에게 전주한지를 접하게 함으로써 작품 소재 선택 범위의 확대와 한지의 활용 방법 등에 도움을 주어 향후 작품 활동에 다양성을 추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프



로그래미 되었다. 또한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 효과 뿐만 아니라 참여 작가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수목화에 사용한 전주한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여 이후 전주한지 제작에 반영함으로써 품질향상의 기회를 확보하는 자리가 되었다. 워크숍은 태국의 학생들에게 수목화라는 영역을 통해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소재인 한지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역할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앞으로 하게 될 작품 활동에 더 많은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했다. /김재훈 기자

채태병 화백 초대전 정읍서 개최

정읍시 생활문화센터에서 한국화 명인 채태병 화백의 무궁화 작품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3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56일간 진행되며 '무궁화는 영원하리'를 주제로 무궁화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담은 20점의 작품이 공개된다. 채 화백은 비단 위에 다양한 색깔의 무궁화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무궁화가 단순한 꽃이 아닌 한국인의 정신과 정체성을 담은 상징적인 존재임을 강조했다. 채태병 화백은 이러한 무궁화의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그림으로 표현했다. 특히 비단에 채색된 20점의 작품은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며 그의 독창적인 터치로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한다. 이번 전시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전시와 관련된 문의는 정읍시 생활문화센터(063-571-5170)로 하면 된다. /정읍=김태환 기자

'아버지전' 전주서 열려

2019년 서울에서 첫 선을 보인 이래로 부산, 광주, 대전, 창원 등을 순회한 아버지전이, 지난 6일 전주호성 하나님의교회에서 10회째 전시를 열었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교회)가 주최하고 (주)멜기세덱출판사가 주관한 아버지전은 6년간 27만여 관람객에게 큰 울림을 선사했다. 시인 내태주, 정호승, 하정호, 이정록, 만화가 이현세 등 기성 문인의 글과 (주)멜기세덱출판사에 투고된 독자들의 글과 사진 등 총 170여 점의 작품들로 전시장이 채워졌다.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감정이 보편화된 요즘,



진심 어린 사람의 형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전망이다. 아버지전은 현재 전주, 대구, 성남에서 열리고 있다. 추후에도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순회할 계획이다. 관람은 무료. 화요일과 토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관람 일정은 홈페이지(thankfather.org)를 참고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토요 기획공연 '판'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충현)은 2025년 한해 동안 총 10회에 걸쳐 토요 기획공연 '판'을 선보인다. 본 공연은 전통예술의 매력을 조명하고 국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상반기 4회와 하반기 6회로 운영, 상반기 공연은 '꽃의 노래'를 주제로 국악연주단의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하반기에는 '국화향 가득한 오후'를 주제로 외부 초청 공연을 포함한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모든 무용 반주를 라이브로 진행하여 전통예술의 생동감을 극대화할 계획이며,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국립민속

국악원 친구추가) 및 전화(063-620-2329)를 통해 예약 및 공연 소식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김충현 원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국악연주단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관객 중심의 기획을 통해 국악의 대중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통예술이 지닌 깊은 울림을 보다 많은 관객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연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